

홍분이 가시기 전에

「학력사항」

- 미국 U.C 버클리대 장기연수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경기고등학교 졸업



이 홍 훈

「경력사항」

- 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현)제4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현)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법원 대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 법원도서관 관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제14회(1973년) 사법시험 합격

I. 나를 성장시켰던 시간

지금 !

폭풍이 지난 후 파도소리만 귓전을 스쳐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날의 지루하고 어두웠던 수험생활과 합격의 흥분은 망각의 세계로 사라질 것 같군요. 고시에 대한 확고한 목적의식도 없이 운명의 부르심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졸업 후 3년이란

아까운 시간을 수험생활에 바쳤지만 그동안 자신과의 끝없는 대화 속에서 '나를 알 수 있는'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볼 때 합격의 기쁨보다는 인간의 성장에 숙연해 질 뿐입니다.

수험생활이 인생의 수단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이 솔직하고 직관적인 표현이지만 반면에 인간을 키우는 자기수양, 자기성장의 과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형언하고 싶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는 것이 다양다단하며 준엄하고, 외관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현실에 공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목적에 앞서 정당한 수단, 과정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저의 비재한 사고로서는 수험생활도 삶의 훌륭한 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성실과 여유로서 일관한다면, 반드시 운명의 신은 당신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II. 낭만속에 고민하던 대학시절

원래 공대를 갈려고 이과에서 공부하다 무슨 생각인지 법대에 들어와서 들뜬 분위기속에서 그를 만들거나 모임이나 좋아하는 과대망상 속에서 한 세월을 보내다가 병태적인 사회에 저항해 보려는 충동 속에서 젊음에 점화도 시켜보았지만,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이론적 도그마로 삼아 마이어의 자력확인력을 가진 프랑켄슈타인에 체념의 허탈을 감내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저로 하여금 비전과 에스프리를 잃지 않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분신을 잉태하고 있는 그이를 만나, 저의 영혼의 고통을 달래면서 뜨거운 마찰 속에서 인생의 황홀을 찾았습니다.

III. 본격적인 수험생활과 좌절 그리고 극복...

이렇게 제멋대로 대학생활 속에서 법서를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접하면서 4학년이 되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부다운 공부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도서관 자리를 착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의 잡념 때문에 여의하게 능률이 오르지 않은 채 1년을 보내고서 시험(10회)에 응시했으나 경험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차분히 책을 읽어갔으며 어느 정도 합격수준에 올라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낙방을 했는데(11회), 민법의 1문 전질과 전세권을 전전권과 전전세권으로 쓰는 착오를 범했으며, 상법의 현물출자에서 이행의 효과를 빼고 쓴 탓으로 조금 모자란 점수로 떨어지게 되었지요(50.8). 그러나 조금만 조심했다라면 합격했을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여간 서운하지 않더군요. 그때 형소법은 71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맞아서 전 과목에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개월 뒤에 있는 10회 시험에서는 전회 점수에 대한 환상과 너무 놀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장남으로의 위치, 결혼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형편없는 점수로 낙방했고 이어 13회 시험에서도 형소법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증명력으로 쓴 탓으로 과락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13회 시험이 끝난 후 떨어진 것을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니 결혼은 약속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더군요. 졸업후 취직도 못하게 해놓아 식객노릇을 시켜놓았으니 그이한테 더 기다려 달라고 말 할 수 있는 낮 짝도 없고 정조뿐만 아

나라 지조까지도 골동품상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세상에 더 기다려 달라기에는 자신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정신적 환경을 바꿀 겸 결혼을 하고 앞으로 생에 대해서는 차분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간소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또 낙방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이와 상의 끝에 이왕에 시작한 일 중단도 할 수 없고, 사나이 한 번 마음먹은 것 끝을 못내는 것은 영원히 서운함의 찌꺼기를 남길 것 같아서, 그이의 너그러운 양해 하에 한번만 다시 공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월 달에 안양사에 방을 구해서 결혼생활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1주에 2일씩 집에 다녀오면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서는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가고 해서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회계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 공부를 7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8월부터 더위라 좀 쉬면서 법서를 대하여 새로운 기본 하에 처음대하는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공부를 3년했고 회독수에도 12회독을 넘어섰고 대강은 외우고 있어서 실력에 대한 자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반성을 했습니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답안작성방법의 졸렬, 글씨가 나쁘고, 그 다음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답안작성방법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글씨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초에 1회독에 이어 모든 잡념을 제거하고 그이는 친정에 내려 보내고 강행을 해서 월말이 되기 전에 2회독을 하고 나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은 또 장난을 치더군요. 12월말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 저의 방이 불이 나서 책, 노트, 신혼이불 등이 거의 타버렸어요. 화마가 스쳐간 폐허의 잔재 속에서 파괴의 희열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더군요. 그날 밤 건질 수 있는 짐을 추려 당장 집으로 왔지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절에 같이 있던 L형과 같이 볼 수 있는 노트와 책을 정리하고 그 나머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한 40일 남고 한데 공부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불 난방을 보완하기 위해 돈을 얼마주고 도배시켜서, 다시 그 방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1주일 후에 짐을 싸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저 때문에 두 L형, K형, S형들은 공부도 못하시고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었고, 그 형들의 정의 때문에 맺어진 합격의 결과인지도 모르지요. 다음 시험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 정신을 긴장시키고 공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1차를 마치고 한 달간 총정리를 했지요. 암기할 것은 철저히 암기하고 빼지 말고 다 읽었어요. 2월 13일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올 때는 어느 정도 여유와 자신을 가졌습니다.

IV. 4일간의 시험 그리고 합격

시험전일에는 잠을 충분히 자고 가능한 많은 문제를 봤습니다. 다행히 본 문제는 그런 대로 잘 쓰고, 못 본 문제는 평소 때 기억을 되살려 차분히 머리에서 회전을 시켜서 써 내려갔습니다.

첫날 헌법시험을 쳤는데 헌법은 원래 자신있는 과목이었는데 첫 시간이라 글씨가 나쁘

고, 두 문제 다 예상외의 문제로서 평소의 기억을 더듬어 썼습니다.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대하여는 어용학자나 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준비를 못한 탓에 서론이 막혀 가지고 시험 다섯 번 중에 가장 나쁜 점수가 나왔고(57점), 둘째날, 행정법 1문은 전날에 본 문제라 아주 잘 썼고, 2문 도로법 40조는 행정법각론은 빠지 않고 읽은 덕분에 무난히 썼습니다(63점). 그리고 상법에서는 1문 주식과 사채는 평소에 중점을 둔 문제라 잘 썼고, 2문 고지의무는 처음 대하는 문제였지만 민법의 계속적 계약의 특질과 법조문을 활용하여 그런대로 썼습니다(57.66). 셋째날 민법·형법은 평소 때 공부한 대로 무난히 썼습니다(민법 48.33, 형법 63). 넷째날, 민소·형소는 평소에 중점을 둔 문제라 잘 썼습니다(민소 63.66, 형소 69).

이렇게 시험을 마친 후 생활전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달을 그러저럭 지냈는데 3월 16일 전주에 다녀오는 길에 형님 댁에서 전화로 합격소식을 들었는데, 담담하고 몇 년간의 수험생활동안의 긴장은 쉬이 가실 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열차에 몸을 싣고 그 동안의 피곤함을 달래는 동안 마음을 안정시키고 겸손을 찾으려 했지만 거짓말같이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집에 도착하여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감격과 환희보다는 고마움과 내일에 대한 약속만이 순간을 점철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인 것 같군요. 준엄한 현실과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겸손과 보석같은 지성을 닦는데 촌음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이 증명해 주고 있군요.

V. 공부방법에 대하여

여러 학형들에게 뭐라 내세울 것 없는 수험생활이라 도움이 될 이야기가 있으리요만은 그 래도 혹시 수험공부에 타산지석이라도 될 까봐 저의 수험생활 동안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험생활에 있어서의 자세

사법시험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시험이란 것을 먼저 확신시키고, 자신감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인내와 성실과 꾸준함을 좌우명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합격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실력 및 공부량

시험에도 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운만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합격여부를 떠나서 10회 정도에는 가까이 이르고,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누가 묻든지 모르는 것이 드문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목차와 의의 정도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3. 공부방법

기본서 단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서에 미비된 것은 문제집이나 잡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방법으로는 암기식 문제를 가급적 지양하는 최근의 출제경향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독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기에 임박해서는 속독을 하여 암기의 양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에 중점을 두시고 의의는 반드시 외워 두세요.

4 서브노트문제

서브노트는 시간상으로나 효과상, 정확성으로나 불필요한 것 같고 타이틀 정도 적은 노트를 해두고서 책을 읽으면서 외우고 내용을 생각해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5. 답안작성에 대하여

저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답안작성에서 뒤지면 실력은 있으면서도 어차구니 없는 실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① 간결, ② 정확, ③ 깨끗이, ④ 큰 오류가 없을 것, ⑤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틈틈이 모의고사답안지 6페이지 정도로 답안작성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답안작성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글씨는 크고 깨끗이, 적당히 줄을 띄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과 형소에서는 목적과 이념을 관련시켜 역점을 두어 쓸 필요가 있습니다.

Ⅶ. 나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험에는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나 7월 4일에는 통일을 향한 청신호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 내실이 필요한 지금에 조국의 영광이란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젊은 세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 조국통일에 회신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펜을 놓기에 앞서 저의 영혼을 어려움을 이기고 애무해 주신 그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생들의 뒷바라지와 더불어 저를 끝까지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격려를 몰랐던 친구들에게 정의를 느끼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빠의 합격을 알었던 딸 아란에게 조그마한 영광을 바칩니다. 그리고 행정법판례집 관계로 노고를 같이 해온 K형의 건투와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